청조의 청문감 편찬

성백인
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1599년 해서여진(海西女眞)의 하다부(哈達部)를 멸하여 여진부족 통일의 길에 들어선 누르하치(努爾哈赤)는 같은 해에 서둘러서 만주문자를 제정한다. 몽고문자를 빌어 만주말을 적기 시작한 것이다(만주실록[滿洲實錄] 권3). 이를 무권점만주자(無圈點滿洲字)라 한다. 이어 1632년에는 만주말을 보다 잘 적을 수 있도록 무권점만주자를 개량하여 유권점만주자(有圈點滿洲字)를 제정하였다. 초기의 유권점만주자의 표기는 확정된 규범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표기법의 유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급속히 그 정서법이 정비되어 1630년대 말에 이르면 상당히 정비된 만주어 문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조(淸朝)는 1644년 수도를 심양(瀋陽)에서 북경(北京)으로 옮기면서 만주어를 문화어(文化語)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일을 벌인다. 우선 중국의 고전을 만주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작업을 통하여, 만주어를 한어(漢語)와 상등한 문화어로 격상시키려는 언어정책을 펴서 1650년대에는 이미 방대한 양의 고전 번역이 이루어진다.

소수 민족인 만주족이 모든 면에서 견줄 수 없이 거대한 한족(漢族)과 몽고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청조의 국어 문제, 즉 언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 민족의 국어인 만주어와 피지배 민족의 언어인 한어 및 몽고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강희(康熙)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힘든 문화정책상의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하여 청조는 1700년대에 일곱 종류나 되는 거질(巨帙)의 청문감(淸文鑑)들을 어제(御製)로 편찬하게 되었다.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당시의 언어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1708서])에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1771서])에 이르는 4종의 청문감에서 우리는 청조의 언어정책의 고민과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 만주어 속의 한어 차용어의 문제, 그리고 급속도로 만주족이 만주어를 잊어버리고 한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봉착한 청조는, 그 대처 방안의 하나로 사전 편찬에 국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편찬된 청문감은 만주어 연구를 위해선 물론이요, 사전학의 연구를 위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만한 사전이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사전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먼저 청나라에서 간행된 그 밖의 청문감들과 민간에서 간행된 주요 사전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청나라에서 편찬된 만주어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어제의 청문감들과 민간에서 편찬한 사전들, ② 만한(滿漢) 사전과 한만(漢滿) 사전, ③ 유별(類別) 사전과 만문십이자두순(滿文十二字頭順) 사전.

먼저 만주어 사전들을 편찬된 연대순으로 그 서명과 간략한 서지를 보기로 한다.

① 滿漢同文類集(同文物名類集), 2卷4册, 木版本, 漢滿 分類, 刊年未詳. 간년은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현전하는 어휘집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② 大淸全書(1683), 14卷14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③ 滿漢同文全書(1690), 8卷8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④ 同文彙集(1693序), 4卷4册, 木版本, 漢滿 分類.

⑤ 同文廣彙全書(1693序). ④와 동일판본.

⑥ 同文廣彙全書, 卷頭書名 : 廣彙全書(1702序), 4卷4册, 木版本, 漢滿 分類. 내용은 ④, ⑤와 같은 책.

⑦ 新刻淸書全集(1699) 內, 滿漢事類集要(版心書名 : 滿漢備攷) 上·下·切要雜言, 木版本, 漢滿 分類.

⑧ 滿漢類書(1700), 32卷8册, 木版本, 滿漢 分類.

⑨ 滿漢類書全集(1701). ⑧의 수정 복각본.

⑩ 滿漢同文分類全書(1706). 표지만 달리한 ⑧의 후쇄본.

⑪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御製淸文鑑](1708序), 序·目錄 1册, 正編 20卷20册, 後序 2篇 1册, 總綱 4卷4册, 木版本, 滿滿 分類.

⑫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Qa γan-u bičigsen manǰu ügen-ü toli bičig* [御製淸文鑑(滿蒙文本)](1717序), 序·目錄1册, 正編 20卷20册, 總綱 4卷8册, 木版本, 滿滿 蒙蒙 分類.

⑬ 淸文備考(1722序), 12卷12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⑭ 音漢淸文鑑 *Nikan hergen i ubaliyambuha manju gisun i buleku bithe*(1735), 20卷4册, 木版本, 滿漢 分類.

⑮ *Han i araha manju monggo gisun i buleku bithe. Hagan nu biciksen manju monggol ugen nu toli bicik.* [御製滿蒙文鑑](1743序), 序·目錄 1册, 正編 20卷20册, 木版本, 滿滿 蒙蒙(有圈點滿洲字 蒙文) 分類.

⑯ 淸文彙書(1751), 12卷12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淸文補彙(1786序), 8卷8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⑰ 御製增訂淸文鑑(1771序), 序·目錄 1册, 正編 32卷32册, 十二字頭 1册, 總綱 8卷8册, 補編 4卷4册, 補編總綱 2卷2册, 續入新語·二次續入新淸語 1册, 木版本, 滿滿 滿漢 分類.

⑱ 御製滿珠蒙古漢字三合切音淸文鑑(1780序), 正編 31卷, 木版本, 滿蒙漢 分類.

⑲ 三合便覽(1780序), 12册, 木版本, 滿蒙漢 十二字頭順.

⑳ 滿洲蒙古兼漢淸文鑑(刊年未詳), 20卷, 木版本. 滿·蒙(滿洲字)·蒙·漢, 分類. 필자가 본 책은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낙질본 10권.

㉑ 御製四體清文鑑(刊年未詳), 正編 32卷, 補編 4卷, 木版本, 滿藏蒙漢 分類.

㉒ 四體合璧文鑑(刊年未詳), 目錄 1册, 正編 32卷 8册, 總綱 8卷2册, 木版本, 滿蒙藏漢 分類. 한어(漢語)에 만주자 표음. ㉑을 민간에서 보급판으로 판을 다시 짜서 책의 장(張) 수를 반 정도로 줄여 펴낸 책.

㉓ 御製五體清文鑑 鈔本, 正編 32卷, 補編 4卷, 滿藏蒙回漢 分類.

㉔ 清文總彙(1897序), 12卷12册, 木版本 滿漢 十二字頭順.

위에 보인 사전들 가운데서 ⑪ ⑫ ⑮ ⑰ ⑱ ㉑ ㉓은 황제의 명으로 정서법과 표준말의 규범을 보이기 위하여 편찬된 사전들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편찬한 사전들이다. 청문감이란 이름은 어제의 사전에 붙여지는 서명이다. ⑭의 음한청문감과 ㉒의 사체합벽문감 등은 민간에서 펴낸 것이지만, ⑭는 ⑪ 어제청문감을, 그리고 ㉒는 ㉑ 어제사체청문감을 보급판으로 펴낸, 청문감과 내용이 같은 책들이어서 청문감 또는 문감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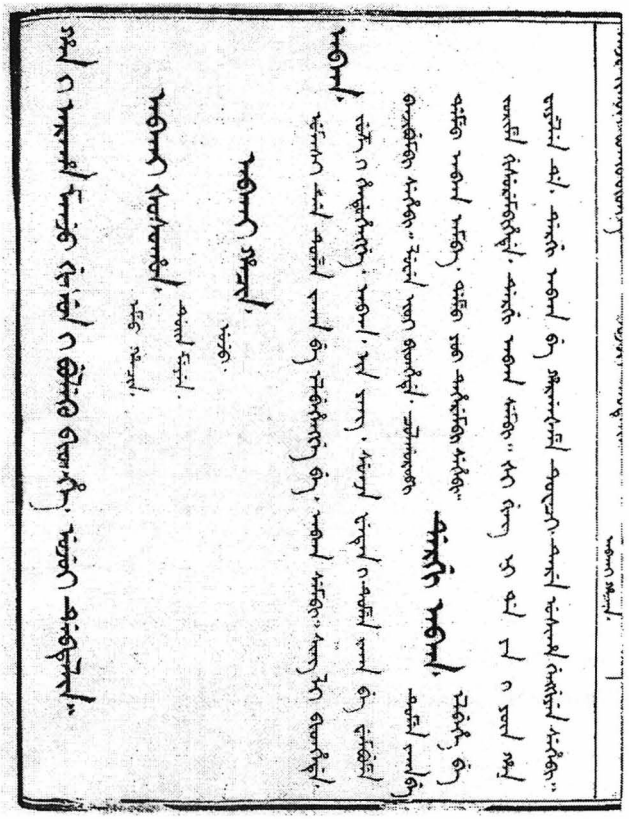
청문감들과 민간에서 펴낸 사전들은 분명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문감에는 규범으로 삼은 어형의 낱말이나 어구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만주어 문헌에 보이는 많은 낱말, 즉 규범으로 삼지 않은 낱말이나 어구와 정서법의 규범으로 삼지 않은 어형의 낱말들은 청문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비규범적인 낱말이나 어형은 민간에서 편찬한 사전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만한 사전과 한만 사전도, 둘 다 모두 흔히 만주어 사전이라 부르고 있으나, 그 성격상 구별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별 사전과 만문십이자두순 즉 만문자모순으로 배열된 사전도 그 편찬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전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위에 보인 여러 청문감들 가운데에서도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은 가장 중요한 청문감이다. 이 두 청문감은 만주말과 만주문어의 전반적인 정비 작업과 혁명적인 언어개혁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만주어의 성음과 자획과 의미를 정한 사전들이다. 이제 이 두 사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어제청문감은 1673년에 강희제의 명에 따라 편찬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을 받은 푸다례(傅達禮)에게 변고가 생겨 일이 상당 기간 천연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마니시 슌주[今西春秋] 1966 : 122 참조). 어제청문감에 붙인 마르간(Margan) 등의 후서를 보면, 어제청문감은 20여 년이 지나도 일이 완결되지 못하자 강희제가 직접 붉은 붓을 들고 교정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이며 독려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 서울대학교도서관본

어제청문감에 붙인 두 편의 후서에 기명된 편찬 관여자 명단을 보면 편찬에

관여한 관원의 수는 마치(Maci) 등 12명과 마르간(Margan) 등 55명, 모두 67명이나 된다. 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지는 않으나, 마르간 등 55명이 편찬의 주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제청문감을 비롯한 청문감들의 편찬 과정과 그 내용의 대강에 대해서는 今西(1966)의 상세한 연구가 있다. 청문감들의 편찬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1957년 북경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에서 펴낸 영인본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 하책 말미에 붙인 황신밍(黃信明, 1957)의 해제와 今西(1966)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간략한 설명으로 마치고, 어제청문감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강희제는 어제청문감서에서 청문감을 편찬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두 가지 대강 옮겨 본다. "오경(五經) 사서(四書) 강목(綱目) 등 정사에 관한 중국 고전의 만주어 번역은 모두 마쳤다. 이제 옛 노인들과 장자(長者)들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러, 기밀스러운 말과 은밀한 뜻이 점차 분명치 않게 된다. 잘못을 따르고, 아닌 것을 본받으니, 상세히 고찰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이나 글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으며, 성음 익히기도 바르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 정사(政事)와 문장(文章)이 모두 글에서 나오는 것이다. 깊이 연구하여 분명히 정하여 놓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행하고 무엇을 규범으로 삼으랴." 이러한 대목을 보면 그 당시 벌써 많은 만주인들이 만주말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정이 걱정이 되어 서둘러 만주말의 성음(聲音, jilgan mudan)의 규범을 정하고, 자획(字畫)의 규범을 정하고, 이어 문장(文章)의 규범을 정하는 일을 착수하고 이 사업에 국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만주말과 글을 잘 정비하고 보존하여 천년 만년 남을 글로 만들자는 것이 어제청문감 편찬의 첫째 목적이었다.

어제청문감을 편찬한 또하나의 큰 목적은 만주글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대망(大望)을 펴기 위한 만주어의 문화어 만들기였다. 어제청문감서와 후서들을 보면, 만주글을 잘 정비해서 천하에서 제일가는 글로 만들어 변방들이 모두 따라 쓰도록 하자는 청조의 염원을 다짐하고 있는데, 어제청문감은 바로 이러한 청조 초기의 언어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청문감의 완성으로 만주어는 엄격한 표기법의 규범이 확정되었다. 어

제서의 말미에서 강희제는 이제부터는 모든 지(旨 : 勅旨), 본(本 : 上奏文), 전고(傳告), 비문(碑文) 등 모든 글에 엄격히 청문감의 규범을 따를 것을 명하고 있다.

어제청문감은 도판에서 보듯이 서명도 표제어도 뜻풀이도 모두 만주어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어구의 풀이 끝에는 중국 고전을 만문으로 번역하여 따온 인용어구가 들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주로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논어(論語), 맹자(孟子), 춘추(春秋), 자치통감(資治通鑑), 예기(禮記) 등 중국 고전에서 뽑은 경사(經史)의 어구가 표제어의 예문으로 들어 있다. 이러한 인용 어구를 기이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말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그것은 어제청문감 편찬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 편찬자들은 그러한 인용어구를 통해서 해당 표제어에 대하여 중국의 경서와 사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며 만주어 어구에도 그러한 철학적, 역사적 뜻을 담기 위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만주 사람들을 교화(敎化)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만주어 어구의 사용 예를 명구(名句)를 따서 제시함으로써 좋은 만주어 문장의 본보기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어제청문감 정편 20권은 36부(部) 280류(類)로 분류되어 있다. 유별 사전의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제청문감의 어구의 분류는 세심한 연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분류는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분류 사전과 십이자두순 사전은 성격이 다른 데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어제청문감을 보면, 어구를 부·류별로 나누어 수록하는 분류 사전은 어구를 찾아보는 책이라는 성격보다 이 책으로 만주어를 학습하는 책이라는 성격에 더 무게를 둔 책인 듯하다. 어제청문감의 끝에는 십이자두순으로 된 총강(總綱)이라는 색인(索引)을 붙여서 필요한 경우 어구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어제청문감은 분류사전으로 편찬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전 속에는 당시의 일반 만주인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개념이나 뜻을 지니는 만주어를 새로이 만들거나 고전 번역시에 이미 만들어 사용해 오던 어구들이 많이 들어 있다. 즉 한어(漢語) 어구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때로는 음차 차용어

로 때로는 번역 차용 형식으로 받아들여 이미 써 오던 또는 새로이 정한 어구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를 만주인들이 학습하여 이용케 하는 데는 분류사전으로 편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뜻풀이 방법에 대한 검토는 뒤에 어제증정청문감의 뜻풀이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어제증정청문감의 편찬에 앞서 청조에서는 앞에 목록한 ⑫, ⑮와 같은 만주어와 몽고어를 짝지은 청문감을 편찬하였다. 둘 다 어제청문감에 있었던 경사(經史) 인용어구는 제거하고 표제어와 뜻풀이 만주어를 몽고어로 번역하여 나란히 짝지어 놓은 책이다. ⑫ 1717서본에는 총강도 몽고어로 번역하여 나란히 짝지워 놓았으나, 배열의 기준이 만주어여서 만주어 색인 구실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⑮ 1743서본에서는 총강을 삭제하여 버렸는데, 특이한 것은 1717서본과는 달리 1743서본에서는 몽고어를 유권점 만주자로 표기하고 있는 일이다. 서명도 1717서본은 만문과 몽문 모두 어제청문감이라 되어 있는데, 1743서본에서는 만주어서명과 몽고어서명이 모두 어제만몽문감(御製滿蒙文鑑)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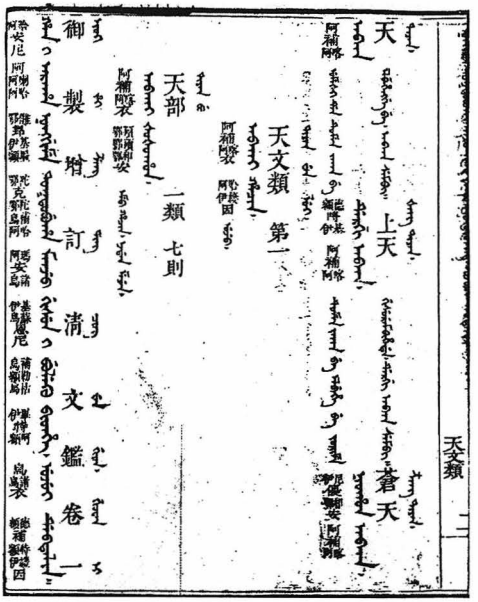
이 두 사전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왜 이러한 거질의 사전을 연달아 두 질이나 편찬하였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된 바가 없으나, 이것들이 청조의 중대한 언어정책의 소산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Hūng jeo와 Bandi 등이 쓴 1743서본의 편자서(編者序)를 보면 편찬 취지를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 편자서에서 Hūng jeo 등은 '몽고음을 정확하게 적고, 몽고 사람과 만주 사람이 서로 쉽게 말을 배울 수 있게 하라'는 한(汗)의 뜻을 받들어 편찬하였다고 적고 있다. 1717서본은 몽고어 정서법의 규범을 정하는 한편, 몽고족이 만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듯하고, 1743서본은 만주족이 몽고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한 듯하기도 하나, 근본 목적은, 마치 만주족이 무권점만주자를 쓰다가 유권점만주자로 개량하여 쓴 것처럼, 몽고어의 표기를 유권점만주자로 표기토록 해 보려는 정책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어떠하였든 간에 이러한 청문감의 출현은 어제청문감(1708) 편찬 당시 지니고 있었던, 만주어를 천하의 글로 만들어 변방이 모두 따라 쓰게 하려던 언어정책의 근간이 수정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네 번째로 편찬한 청문감이 어제증정청문감(1771서)이다. 어제증정청문감(1771서)은 어제청문감(1708)을 증정(增訂)한 것이다. 그러나 그 체재나 내용을 보면 어제증정청문감은 증정한 것이라기 보다 새로 지은 청문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어제증정청문감은 앞 목록에서 본 바와 같이 서와 목록 1책, 정편 32권 32책, 십이자두 1책, 총강 8권 8책, 보편 4권 4책, 보편총강 2권 2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질 속에는 속입신어 또는 속입신어와 이차속입신청어 1책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책은 후쇄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편 32권은 36부 292류로, 보편 4권은 26류로 분류되어 있다. 총어구수는 근 18,700 항목에 이른다.

어제증정청문감이 어제청문감과 달라진 점과 같은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만만(滿滿) 사전이 만한(滿漢) 사전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도판에서 보듯이 만주어와 한어를 좌·우에 나란히 놓고, 만주어에는 한자대음(漢字對音)을 붙이고, 한어에는 만주자로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즉 만만 사전이 만만 사전 겸 만한 겸 한만 사전으로 개편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제증정청문감서에서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을 열거하면서 「每門首著國語, 旁附漢字對音, 或一字或二合或三合切音」과 같이 만주어에 한자로 음을 달아 놓은 일은 머리에 크게 들추어 적고 있으면서, 그 오른쪽에 한어(漢語) 대역(對譯)을 추가하고 그 한어에 만주자로 표음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뜻풀이는 어제증정청문감에서도 어제청문감과 꼭 같이 만주어 뜻풀이(전석[詮釋])를 달아 놓았으나, 이른바 경전성어(經傳成語)라고 하는 경사(經史)로부터의 인용 어구는 삭제되었다. 경전성어 인용어구를 제외한 어제청문감의 만주어 전석, 즉 뜻풀이는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나 수정한 곳도 있다. (3) 어제증정청문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어제서에 「綜計續入新定國語, 五千餘句」라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이 정한 오천여 구의 새로운 만주어가 투입된 일이다. 18,700 가량의 어구 가운데서 5,000여 어구가 새로이 제정된 어구라면, 그 개수만 보면 이것은 언어혁명이라 할 만한 일이다. 이 「신정국어오천여구」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어 음차 차용어를 가급적 줄이고 고유한 만주말을 이용한 번역 차용 형식으로 한어를 차용한다는 것이 어제증정청문감의 증정시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제청문감 속에 한어 음차 차용어의 수가

그리 많았던 것이 아니어서 어제청문감 속의 음차 차용어를 고유한 만주말이나 번역 차용어로 대체한 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를 바꾼 것도 아니다. 今西(1966 : 136)의 조사에 의하면 번역 차용 형식으로 바꾼 어구의 수가 350 정도라고 한다. 둘째는 대개 새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문화어, 문명어들이다. 예를 들면 어제증정청문감 천문류(天文類) 제2와 제3에는 별의 이름이 77개 항목이나 되는데 어제청문감에는 16개 항목밖에 없다. 어제증정청문감에 있던 16개는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천문학의 도입을 위하여 61개 항목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된다. 번역 차용어도 일찍부터 이미 사용되어 오던 것을 수용 정리하여 수록한 사실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는 번역 차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도 더러 보인다. šutucin(序)은 어제증정청문감서의 서명(序名)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알 만한 것이라 하여 따로 수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šutucin은 šu(文)와 tucin(原由)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신정오천여구」의 투입은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였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清文鑑) 서울대학교도서관본

4.

끝으로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의 만문 전석, 즉 뜻풀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만문 전석은 두 청문감 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이 만문 전석은 어제청문감에서 만문에 붙여진 것이지만,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만주어 어구에 대역으로 붙인 한어(漢語)의 뜻풀이도 되는 것이어서 18세기 한어 백화문(白話文)의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다.

조선조(朝鮮朝) 사역원(司譯院)에서는 어제증정청문감을 개편하여 한청문감(漢淸文鑑)을 편찬하였는데, 개편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만문 전석을 이용하여 당시 한어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에는 아직 어제증정청문감만한 규모의 뜻풀이가 달린 백화문의 어휘집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의 만주어 어구의 의미의 이해는 전적으로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의 만문 전석에 의거하고 있다. 어제청문감 이후에 청나라에서 펴낸 청문휘서(淸文彙書)나 청문총휘(淸文總彙) 같은 대표적인 만주어사전의 한어로 된 만주어에 대한 뜻풀이는 전적으로 이 만문 전석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주어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청문감 속의 만문 전석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의 만문 전석은 만주어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데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낱말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도 참고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증정청문감서에 「詮釋具以日用常言, 期人共曉」라 밝히고 있듯이 만문 전석은 쉬운 말로 아주 간결하게 기본 뜻을 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사전 편찬자들이 이 만문 전석을 참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문 전석의 예를 몇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abka, umesi den tumen jaka be elbehengge be, abka sembi.
하늘, 아주 높은 만 물 을 덮은 것 을, 하늘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1a.

bigan, onco šehun ba be, bigan sembi.
들, 넓은 훤히 트인 곳 을, 들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32a.

edun, abka na i sukdun selgiyebume dara be, edun sembi.
바람, 하늘 땅 의 기(氣)가 펴지도록 부는 것 을, 바람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13b.

elden, šun, biya, usiha, tuwai genggiyen, yasa de fosoro
빛, 해, 달, 별, 불의 밝은, 눈 에 쏘이는 것

be, elden sembi.
을, 빛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2b.

ici, jebele ergi be, ici ergi sembi.
오른쪽, 화살대(撒袋) 쪽 을, 오른 쪽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50a.

niyalma, abkai banjibuha tumen ergengge i dorgi umesi
사람, 하늘이 낸 만 가지 생명 중 아주

surengge be, niyalma sembi
총명한 것 을, 사람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5-1a.

šun, inenggi tucifi gubci abka na de eldekengge be, šun sembi.
해, 낮에 나와서 온 하늘 땅 에 빛나는 것 을, 해 라 한다.

어제청문감 1-2b.

usiha, dobori abka de sarafi, emke emken i elden
별, 밤에 하늘 에 펴져서 하나 하나씩 빛이

bisirengge be, usiha sembi.
있는 것 을 별 이라 한다. 어제청문감 1-4b.

참 고 문 헌

黃信明(1957). "有關五体淸文鑑的一些歷史材料". 北京 故宮博物院 影印『五体淸文鑑』Ⅲ, pp. 1-7.

今西春秋(1966). "淸文鑑 一單体から5体まで".『朝鮮學報』39·40, pp. 121-163.

石橋崇雄(1993).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御製淸文鑑) 考 一特にその語彙解釋中の出典をめぐって一".『國士館大學文學部 人文學會紀要別冊』1, pp. 67-87.

成百仁(1986).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東方學志 52』.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pp. 219-258.

成百仁(1998). "漢淸文鑑 解題".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影印『漢淸文鑑』一. 弘文閣, pp. 1-17.